

대학생의 온라인 정치활동과 투표행태: 제17대 총선을 중심으로*

유 석 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제17대 총선에서 대학생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미디어는 방송매체, 주변사람과 대화, 인터넷정보, 종이언론 순으로 나타나, 기존 신문의 극적인 영향력 쇠퇴와 방송매체와 인터넷의 영향력 확대가 명확히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문에 영향을 받은 집단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방송과 인터넷에 영향을 받은 집단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에서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이 현실세계에서의 투표율과 일정한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온라인 폴 참여와 메신저 대화명, 펼칠의 빈도순으로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네티즌들의 투표 성향은 온라인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집단은 약간 높은 비율로 우리당을 지지하였고, 민노당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온라인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한나라당은 온라인 활동가들의 낮은 지지와 비활동가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의 획득이라는 상반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어서,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가 현실세계에서의 정치참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 들어가면서

2004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17대 총선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추

*설문자료의 정리와 통계 처리는 유지성(서강대 정외과 대학원), 이상돈(서강대 신방과 대학원), 김상준(서강대 정외과 석사)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협조하여주신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미애 민주당 대표의 삼보일배,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편하 발언,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 선출 등의 다양한 사건 속에서 치루어졌다. 탄핵의 역풍으로 우리당이 압승하리라던 예상은 이러한 다양한 사건 속에서 희석되고, 우리당의(근소한 차이의) 다수석 확보, 한나라당의 선전, 민주당의 불락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선거 결과 외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투표율이 소폭이나마 반등하였고, 선거법 개정의 여파로, 정당 중심의 대규모 선거운동에서 후보자 중심의 거리 유세가 지배적인 양태로 등장하였다.

17대 총선의 또 다른 특징은 정치 행위의 공간이 현실세계에서 인터넷으로 급속하게 옮겨졌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각 후보에 관한 신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고, 거의 모든 후보와 정당이 경쟁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네티즌 유권자를 유혹하였다. 또한 네티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캠페인을 인터넷상에 만들어 후원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기존 언론이 장악하고 있던 의제설정 기능도 변화하였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독립신문, upkorea 등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선거의제와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기존의 사회단체들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다양한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빠르게 확산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선거운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특징도 보여 주었다. 탄핵안의 국회통과 이후 다음(daum)에는 '국민을 헐박하지 마라(antitanhak)' 등의 카페가 개설되어 엄청난 회원을 확보하였고, 디시인사이드(dcinside)의 토론방에는 탄핵을 쟁점으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는 현상도 발생하였다.¹⁾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사이월드에서의 대화시간에는 십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접속하였고, '투표부대' 등의 다양한 활동과 미디어몹(mediamob), 라이브이즈(liveis) 등을 통한 패러디와 각종 어록(노회찬, 전여옥, 유시민 등)이 유포되는 현상도 복도되었다.

1) 미정치적인 목적으로 출발한 디시인사이드(dcinside: 디지털 카메라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의 토론방에는 3월 12일 탄핵안 가결 이후 25일여 만에 2만개가 넘는 글이 게시되었다. 토론방의 역사로 보았을 때 이런 기록은 가히 메가톤급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글이 게시되었던 미군 여중생 살해사건(2002. 11. 29~2003. 3. 13. 3321건), 유승준 입국 참반논쟁(2003. 5. 30~2003. 7. 30, 2365건)과 비교해 보면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특히 제17대 총선 기간 동안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열어준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정세되지 않은 이론과 부정확한 사실의 유포 등을 통한 사이버 포퓰리즘의 확산이 우려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론적이고 담론적인 차원에서 양사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 왔다(강상현 1999; 윤성이 1999; 유석진 1996, 2003).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으로 이러한 이론적 담론적 흐름을 정치와 선거의 실제 현장에서 실증적,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행태주의적 논문들을 들 수 있다(정연정 2000, 2001; 김용철, 윤성이 2000; 정동규 2003).

이 글의 목적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활동이 선거에서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시론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엄밀한 이론에 기초한 인과관계의 분석보다는, 온라인에서 특정한 행위 양태를 보이는 네티즌이 실제 선거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를 교차분석을 활용한 경향성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사용된 샘플은 2004년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을 통하여 추출되었다. 대학생들 선택한 이유는 거의 모든 대학생이 네티즌이라는 점과 아울러, 사회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집단이기는 하지만 네티즌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노력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작용하였다. 물론 이 집단을 통한 설문과 분석이 사회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다. 먼저 모집단과의 관계설정이 명확히 되어야 하고, 대학생이 가지는 특이한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정향성도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네티즌의 정치참여 방식과 정치의식을 규명하고 정치적 선택에 온라인이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시론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설문은 23개 대학에서²⁾ 수집되었고, 전공도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예술대학, 이공대학 등 모집단 대학생과 유사하도록 고려하였으나 실제 설문과정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비율이 반영되지는 못하였다.³⁾ 총 설문 샘플은 대학생 1,500

2) 서울소재 대학 13개, 수도권소재 대학 5개, 지방소재 대학 5개

명이다.

II. 네티즌의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활동

네티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KRNIC)에서 규정한 "만 6세 이상으로 월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이 일반적 정의로 제시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정치사회적인 맥락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하기 힘든 정의이다. 정연정, 조성대(2004)는, KRNIC의 정의에 따라 인차적으로 일반대중(General Public: GP)과 네티즌을 구분하고, 2단계로서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여부를 중심으로 단순이용자(Simple User: SU)와 참여자를 구분한 후, 3단계로서 활동하는 커뮤니티의 성격이 정치적인지 여부에 따라 비정치적 참여자(Nonpolitical Participant: NPP)와 정치적 참여자(Political Participant: PP)로 구분하고 있다. 즉 GP, SU, NPP, PP의 네 가지 유형의 네티즌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염두에 두면서도 엄밀하게 따르지는 않고, 첫째, 네티즌들이 어떠한 경로(미디어)를 통하여 정치 정보를 습득하고 영향을 받는지, 둘째, 대학생이 온라인에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어떠한 투표 행태를 나타내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귀하의 정치적 선택에서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어떤 미디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문항 11)을 통하여 주된 영향을 미친 미디어가 투표여부와 투표후보 정당과 비례정당의 선택에 미친 영향력을 경향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둘째, 온라인 정치활동의 중요한 형태인 워킹(문항 16)과 온라인 토크(문항 17) 그리고 메신저 대화명(문항 18) 등의 행위가 투표여부와 투표후보 정당, 비례정당의 선택에 미친 영향력을 교차분석을 통하여 경향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투표동력 행위를 하거나 받은 네티즌들의 투표여부와 투표후보, 비례정당의 선택에 미친 영향력을 경향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3) 사회과학(44.4%), 인문학(15.1%), 공학(12.7%), 사인과학(7%), 경영,경제학(7.4%), 예체능(8%), 의과대 등 기타(5.5%)

정상적인 논문의 전개방식은 위의 세 변수의 이론적 의미에 대한 논리적 도출이 진행되고 이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통한 검증이 되어야 할 것이나, 여러 제약상 이 논문에서는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게 되는 한계를 먼저 밝히고자 한다.

위의 교차분석을 통하여 온라인에서 특정한 행위 형태를 보이는 네티즌들의 투표참여 여부와 지지정당에 대한 일반적 경향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온라인 정치활동과 선거에서의 선택

제17대 총선의 20대 투표율은 37.1%로, 16대 대선에서의 56.5%보다 낮았으며, 16대 총선의 36.8%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본 조사에서 대학생 네티즌의 투표율은 51.1%로 20대 평균 투표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1. 영향을 미친 미디어에 따른 투표 행태

영향을 미친 미디어와 이에 따른 투표 행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향을 미친 미디어는 방송매체(38.2%), 주변사람과 대화(23.6%), 인터넷정보(17.4%), 종이언론(10.2%)의 순으로 나타나 절대적인 방송매체의 영향력과 종이언론의 영향력 쇠퇴 그리고 전통적인 주변사람과의 대화 영향력 지속, 마지막으로 인터넷정보의 영향력 신장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에 나타나듯이 비록 영향력은 작지만 종이언론에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의 투표율은 62.3%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투표참여가 가장 높았고, 주변사람과 대화(58.2%), 인터넷정보(51.7%), 방송매체(48.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롭게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방송매체와 인터넷이 유권자를 투표로 이끄는 데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미디어와 투표여부

		투표여부		Total (%)
		예	아니오	
미디어	주변 사람과 대화	206 (58.2)	148 (41.8)	354 (100.0)
	종이언론	96 (62.3)	58 (37.7)	154 (100.0)
	방송매체	281 (49.0)	293 (51.0)	574 (100.0)
	인터넷정보	135 (51.7)	126 (48.3)	261 (100.0)
	이동통신	0 (0)	2 (100.0)	2 (100.0)
	모름/무응답	48 (31.0)	107 (69.0)	155 (100.0)
Total (%)		766 (51.1)	734 (48.9)	1500 (100.0)

**Pearson Chi-Square Value = 43.326, df = 5, p = 0.000

투표한 대학생 네티즌들의 정치적 선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1500명의 샘플 중 투표를 한 766명 중 우리당 후보에 투표한 대학생 네티즌을 미디어 영향력 별로 분포를 보았을 때 인터넷정보(66.7%), 방송매체(53.7%) 종이언론(42.7%), 주변사람과 대화(40.8%)로 순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한 대학생 네티즌 중 주변사람과 대화에 영향을 받은 샘플은 41.3%, 종이언론 29.2%, 방송매체 27%, 인터넷 정보 14.8%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정보와 방송매체의 상대적 진보성이나 개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도 있고, 탄핵에 따른 정보 내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종이언론과 주변사람과의 대화가 보여주는 상대적 보수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도 가능하다.

17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1인 2표제가 가져오는 효과를 보기 위하여 영향받은 미디어와 비례정당 투표 행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주변사람과 대화에 영향을 받은 206명의 집단 중 36.9%만이 한나라당에 투표한

표 2. 미디어와 투표후보 정당⁴⁾

		투표정당				Total (%)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미디어	주변사람과 대화	85 (41.3)	84 (40.8)	18 (8.7)	19 (9.2)	206 (100.0)
	종이언론	28 (29.2)	41 (42.7)	15 (15.6)	12 (12.5)	96 (100.0)
	방송매체	76 (27.0)	151 (53.7)	31 (11.0)	23 (8.2)	281 (100.0)
	인터넷정보	20 (14.8)	90 (66.7)	12 (8.9)	13 (9.6)	135 (100.0)
	모름/무응답	19 (39.6)	16 (33.3)	6 (12.5)	7 (14.6)	48 (100.0)
Total (%)		228 (29.8)	382 (49.9)	82 (10.7)	74 (9.7)	766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43.328, df = 12, p = 0.000

표 3. 미디어와 비례정당 투표

		비례정당				Total (%)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미디어	주변사람과 대화	76 (36.9)	53 (25.7)	57 (27.7)	20 (9.7)	206 (100.0)
	종이언론	20 (20.8)	30 (31.3)	40 (41.7)	6 (6.3)	96 (100.0)
	방송매체	57 (20.3)	105 (37.4)	101 (35.9)	18 (6.4)	281 (100.0)
	인터넷정보	10 (7.4)	78 (57.8)	41 (30.4)	6 (4.4)	135 (100.0)
	모름/ 무응답	17 (35.4)	13 (27.1)	13 (27.1)	5 (10.4)	48 (100.0)
Total (%)		180 (23.5)	279 (36.4)	252 (32.9)	55 (7.2)	766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70.120, df = 12, p = 0.000

반면 민노당에 27.7%, 우리당에 25.7% 투표하여 투표 후보의 정당과는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종이언론에 영향받은 96명의 집단 중 41.7%가 민노당을, 31.3%가 우리당을, 20.8%만이 한나라당을 선택하였다. 방송매체에 영향을 받은 집단 281명 중 105명(37.4%)이 우리당, 101명(35.9%)이 민노당, 57명(20.3%)이 한나라당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정보에 영향을 받은 집단 135명 중 78명(57.8%)이 우리당, 41명(30.4%)이 민노당, 10명(7.4%)이 한나라당에 투표하였다. 방송매체에 영향받은 네티즌이 특히 우리당과 민노당에 투표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향받은 매체와는 상관없이 분리투표(split voting) 행태를 보이고 있다.

2. 편집에 따른 투표 행태

편집의 정도에 따라 '자주' 한 경우(5회 이상) 58%, '가끔' 한 경우에는 51.8%, '전혀' 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50.1%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 편집을 자주 할수록, 즉 온라인 활동가(activist)일수록 투표할 성향이 약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편집의 정도에 따른 투표후보 정당의 분포를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편집을 자주하는 집단 중 48.3%가 우리당, 29.3%가 민노당, 15.5%가 한나라당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편집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당은 51.6%, 한나라당 32.8%, 민노당 6.8%로 나타나, 편집의 빈도가 우리당 투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편집을 자주할수록 민노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를 비례정당 투표와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를 통하여 볼 수 있다.

편집의 빈도와 비례정당에 대한 투표행태도 표 4의 경향이 보다 강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편집과는 상관없이 우리당은 36%대의 표를 얻었음에 반하여, 편집 빈도가 높아질수록 한나라당은 표를 얻는데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고(없다 26.6%, 가끔 20.0%, 자주 12.1%), 민노당은 이와 정반대의 경향성을(없다

4)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제17대 국회에서 3당까지만을 별도로 분석하였고, 민주당, 자민련과 나머지 정당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4. 폼질과 투표후보 정당

		투표정당				Total (%)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폼질	자주	9 (15.5)	28 (48.3)	17 (29.3)	4 (6.9)	58 (100.0)
	가끔	64 (27.2)	110 (46.8)	33 (14.0)	28 (11.9)	235 (100.0)
	없다	155 (32.8)	244 (51.6)	32 (6.8)	42 (8.9)	473 (100.0)
Total (%)		228 (29.8)	382 (49.9)	82 (10.7)	74 (9.7)	766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36.698, df = 6, p = 0.000

표 5. 폼질과 비례정당 투표

		비례정당				Total (%)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폼질	자주	7 (12.1)	21 (36.2)	30 (51.7)	0 (0)	58 (100.0)
	가끔	47 (20.0)	85 (36.2)	88 (37.4)	15 (6.4)	235 (100.0)
	없다	126 (26.6)	173 (36.6)	134 (28.3)	40 (8.5)	473 (100.0)
Total (%)		180 (23.5)	279 (36.4)	252 (32.9)	55 (7.2)	766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22.614, df = 6, p = 0.001

28.3%, 가끔 37.4%, 자주 51.7%)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또한 분리투표의 행태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표 6. 메신저 대화명과 투표여부

		투표여부		Total (%)
		예	아니오	
메신저명	무응답	1 (50.0)	1 (50.0)	2 (100.0)
	있다	189 (62.4)	114 (37.6)	303 (100.0)
	없다	576 (48.2)	619 (51.8)	1195 (100.0)
Total (%)		766 (51.1)	734 (48.9)	1500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19.438, df = 2, p = 0.000

표 7. 메신저 대화명과 투표후보 정당

		투표정당				Total (%)
		한나라당	우리당	무소속	기타	
메신저명	무응답	0 (.0)	1 (100.0)	0 (.0)	0 (.0)	1 (100.0)
	있다	37 (19.6)	97 (51.3)	38 (20.1)	17 (9.0)	189 (100.0)
	없다	191 (33.2)	284 (49.3)	44 (7.6)	57 (9.9)	576 (100.0)
Total (%)		228 (29.8)	382 (49.9)	82 (10.7)	74 (9.7)	766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30.724, df = 6, p = 0.000

표 8. 메신저 대화명과 비례정당 투표

		비례정당				Total (%)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메신저명	무응답	0 (.0)	1 (100.0)	0 (.0)	0 (.0)	1 (100.0)
	있다	22 (11.6)	70 (37.0)	86 (45.5)	11 (5.8)	189 (100.0)
	없다	158 (27.4)	208 (36.1)	166 (28.8)	44 (7.6)	576 (100.0)
Total (%)		180 (23.5)	279 (36.4)	252 (32.9)	55 (7.2)	766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29.576, df=6, p=0.000

3. 메신저 대화명과 투표행태

메신저 대화명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설문 16)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적이 있다고 대답한 집단이 62.4%의 투표율을 보여, 없다는 집단의 48.2%에 비해 훨씬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투표행태를 보면 투표후보 정당과 비례정당 투표 모두에서 메신저 대화명에 정치적 이슈를 반영한 집단이 투표후보 정당에서 우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비례정당에서는 민노당을 선택하는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당은 메신저 대화명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50% 전후의 표를 획득한 반면 한나라당은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한 집단에서는 19.6%의 표를 획득한 반면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33.2%의 표를 획득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민노당은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한 집단에서 20.1%,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7.6%의 표를 획득하였다.

비례정당의 선택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당은 비슷한 득표율을 보이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있다' 집단에서 11.6%, '없다' 집단에서 27.4%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민노당은 45.5%와 28.8%의 차이를 정반대로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메신저 대화명을 사용한 대학생 네티즌은 투표할 확률이

표 9. 온라인 풀과 투표여부

		투표여부		Total (%)
		예	아니오	
온라인 풀	부응답	0 (.0)	2 (100.0)	2 (100.0)
	자주	119 (67.6)	57 (32.4)	176 (100.0)
	가끔	396 (55.2)	322 (44.8)	718 (100.0)
	없다	251 (41.6)	353 (58.4)	604 (100.0)
Total (%)		766 (51.1)	734 (48.9)	1500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48.032, df = 3, p = 0.000

표 10. 온라인 풀과 투표후보 정당

		투표정당				Total (%)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온라인 풀	자주	26 (21.8)	67 (56.3)	18 (15.1)	8 (6.7)	119 (100.0)
	가끔	113 (28.5)	202 (51.0)	47 (11.9)	34 (8.6)	396 (100.0)
	없다	89 (35.5)	113 (45.0)	17 (6.8)	32 (12.7)	251 (100.0)
Total (%)		228 (29.8)	282 (49.9)	82 (10.7)	74 (9.7)	766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18.028, df = 6, p = 0.006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훨씬 높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당과 민노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경우 분리투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표 11. 온라인 풀과 비례정당 투표

		비례정당				Total (%)
		한나라당	우리당	민주노동당	기타	
온라인 풀	자주	16 (13.4)	49 (41.2)	50 (42.0)	4 (3.4)	119 (100.0)
	가끔	89 (22.5)	147 (37.1)	143 (36.1)	17 (4.3)	396 (100.0)
	없다	75 (29.9)	83 (33.1)	59 (23.5)	34 (13.5)	251 (100.0)
Total (%)		180 (23.5)	279 (36.4)	252 (32.9)	55 (7.2)	766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43.373, df = 6, p = 0.000

4. 온라인 풀과 투표행태

표 9에서 보이듯이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이온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네티즌은 그렇지 않은 네티즌에 비해 투표율이 높았다. 5회 이상 온라인 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네티즌 176명 중 119명(67.6%)이 투표를 하였고, 가끔 참여한 경험이 있는 네티즌 718명 중 396명(55.2%)이 투표를 하였으나, 참여한 경험이 없는 네티즌 604명 중 251명(41.6%)만이 투표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라인 풀 참여 경험과 투표후보 정당 그리고 비례정당의 선택은 표 10과 표 11로 나타난다.

온라인 풀 참여한 경험이 자주(5회 이상) 있는 집단이 56.3%가 우리당, 21.8%가 한나라당, 15.1%가 민주노동당을 선택하였음에 반해 가끔 한 집단에서는 각각 51.0%, 28.5%, 11.9%, 전혀 없는 집단에서는 45.0%, 35.5%, 6.8%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풀에 적극적으로 응한 네티즌일수록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선택한 확률이 높았고, 온라인 풀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한나라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례정당의 선택에 있어서도, 온라인 풀 참여 경험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

표 12. 투표참여 독려 수신자의 투표참여

		투표여부		Total (%)
		예	아니오	
투표 독려 수신	무응답	0 (.0)	1 (100.0)	1 (100.0)
	있다	282 (58.5)	200 (41.5)	482 (100.0)
	없다	484 (47.6)	533 (52.4)	1017 (100.0)
Total (%)		766 (51.1)	734 (48.9)	1500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16.636, df = 2, p = 0.000

다. 자주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한나라당이 13.4%, 우리당이 41.2%, 민노당이 42%로 나타나고 있고, 가끔 한 집단에서는 각각 22.5%, 37.1%, 36.1%,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29.9%, 33.1%, 23.5%로 나타났다.

온라인 폴에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비례정당에서 우리당과 민노당을 선택한 확률이 높아지고, 경험이 적을수록 한나라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 투표참여 독려 수신자와 투표행태

총선 당일에 즈음하여 투표참여 독려를 받은 적이 있는(문항 20) 대학생 네티즌과 그렇지 않은 네티즌의 투표 참여율은 차별성이 있었다. 표 12에 나타나듯이 투표참여 독려를 받은 적이 있는 네티즌 482명 중 282명(58.5%)이 투표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네티즌 1017명 중 484명(47.6%)만이 투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투표율의 차이가 투표독려의 효과때문인지에 대하여는 현재의 설문 조사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의 투표후보 정당 선택을 보면 큰 차별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⁵⁾ 부

5) 표 13의 유의도 수치는 0.479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13. 투표참여 독려 수신자와 투표후보 정당

		투표정당				Total (%)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투표 독려 수신	있다	77 (27.3)	149 (52.8)	32 (11.3)	24 (8.5)	282 (100.0)
	없다	151 (31.2)	233 (48.1)	50 (10.3)	50 (10.3)	484 (100.0)
Total (%)		228 (29.8)	382 (49.9)	82 (10.7)	74 (9.7)	766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2.497, df = 3, p = 0.479

표 14. 투표참여 독려 수신자와 비례정당 투표

		비례정당				Total (%)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투표 독려 수신	있다	51 (18.1)	120 (42.6)	88 (31.2)	23 (8.2)	282 (100.0)
	없다	129 (26.7)	159 (32.9)	164 (33.9)	32 (6.6)	484 (100.0)
Total (%)		180 (23.5)	279 (36.4)	252 (32.9)	55 (7.2)	766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11.152, df = 3, p = 0.011

표참여 독려 수신자가 한나라당(27.3%), 우리당(52.8%), 민노당(11.3%)에 투표한데 비해, 그렇지 않은 네티즌은 한나라당(31.2%), 우리당(48.1%), 민노당(10.3%)에 투표하였다. 두 집단 사이에서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선택은 약 4%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민노당의 경우에는 1%의 차이에 불과하여 투표참여 독려 운동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례정당의 선택에 있어서는 투표참여 독려를 받은 대학생 네티즌 282명 중 51명(18.1%)이 한나라당, 120명(42.6%)이 우리당, 88명(31.2%)이 민노당을 선택하였고, 투표참여 독려를 받지 않은 집단 484명 중 129명(26.7%)이 한나라당,

159명(32.9%)이 우리당, 164명(33.9%)이 민노당을 선택하였다. 비례정당의 경우에서는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선택이 약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나, 민노당의 경우는 오히려 투표참여 독려를 받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6. 투표참여 독려자와 투표행태

수동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받은 네티즌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한 네티즌의 투표행태는 어떠한가?〈문항 21〉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투표참여 독려를 한 네티즌은 투표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언론보도⁶⁾ 등에 따르면 이 운동이 승패를 갈랐다고까지 주장되기도 하였다. 투표참여 독려 수신자의 투표행태에서 보았듯이 투표율에는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자 정당 선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비례정당의 선택에서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구체적 자료를 보면 투표참여 독려자의 투표행태가 그렇지 않은 집단과 어느 정도의 차별성은 있지만 결정적이었다고 단언하기 힘들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투표참여 독려를 한 139명의 집단 중 95명(68.3%)만이 투표한 것으로 드러나, 예상하였던 적극적 정치참여의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6) 월간우리당 김성호 의원은 "대도시의 접전지역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젊은 층이 많이 참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로 친노(親盧) 성향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서는 물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도 동원해 20, 30대의 투표참여를 독려했다(경향신문, 2004. 4. 16). 친노 관례들은 투표종료 직전까지 20~30대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들은 시간대별 투표율을 점검하면서 노사모 게시판 등을 통해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특히 오전에 20~30대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입소문이 퍼지자 휴대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짬뽕출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게임 서버 등에서 일제히 투표참여 운동이 벌어졌다(서울신문, 2004. 4. 16). 17대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네티즌들의 투표 참여 촉구 열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유머 사이트 '웃긴대학'은 이날 '웃대생들이여 투표합시다!'라는 공지를 올려 네티즌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 '디지털사이드'도 짬뽕출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대 투표참여독려를 위한 패러디 공모전'을 열고 있다. 시사패러디 사이트 '라이브이즈 닷컴' 역시 '4월 15일 민주주의의 부활을 기원하며'라는 슬로 함께 '투표참여 1천만 매일 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다(한겨레신문, 2004. 4. 16).

표 15. 투표참여 독려자와 투표여부

		투표여부		Total (%)
		여	아니오	
투표 독려	무응답	3 (42.9)	4 (57.1)	7 (100.0)
	있다	95 (68.3)	44 (31.7)	139 (100.0)
	없다	668 (49.3)	686 (50.7)	1354 (100.0)
Total (%)		766 (51.1)	734 (48.9)	1500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18.420, df = 2, p = 0.000

표 16. 투표참여 독려자와 투표후보 정당

		투표정당				Total (%)
		한나라당	우리당	민주노동당	기타	
투표 독려	무응답	1 (33.3)	2 (66.7)	0 (0)	0 (0)	3 (100.0)
	있다	26 (27.4)	45 (47.4)	14 (14.7)	10 (10.5)	95 (100.0)
	없다	201 (30.1)	335 (50.1)	68 (10.2)	64 (9.6)	668 (100.0)
Total (%)		228 (29.8)	382 (49.9)	82 (10.7)	74 (9.7)	766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2.823, df = 6, p = 0.831

투표참여 독려자 중 실지로 투표한 95명을 분석해보면 26명(27.4%)이 한나라당, 45명(47.4%)이 우리당, 14명(14.7%)이 민주노동당 후보를 선택하였다. 투표참여 독려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집단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⁷⁾ 우리당을 선택한 대학생 네더슨의 투표독려(45명)

표 17. 투표참여 독려자와 비례정당 투표

투표 독려		비례 정당				Total (%)
		한나라당	우리당	민노당	기타	
투표 독려	무응답	0 (.0)	2 (66.7)	1 (33.3)	0 (.0)	3 (100.0)
	있다	19 (20.0)	35 (36.8)	36 (37.9)	5 (5.3)	95 (100.0)
	없다	161 (24.1)	242 (36.2)	215 (32.2)	50 (7.5)	668 (100.0)
Total (%)		180 (23.5)	279 (36.4)	252 (32.9)	55 (7.2)	766 (100.0)

** Pearson Chi-Square Value = 3.680, df = 6, p = 0.720

가 한나라당을 선택한 네티즌보다(26명) 내약 두 배 가량이 많았고, 민노당은 14명이었다.

비례정당의 경우, 95명 중 19명(20%)이 한나라당, 35명(36.8%)이 우리당, 36명(37.9%)이 민노당을 선택하여 한나라당과 우리당 사이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치밀성이 적고 민노당이 최대의 수혜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분리투표 행태를 보여주는 자료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자료의 부족으로 투표참여 독려 행위가 20대 유권자, 특히 대학생 유권자를 투표소로 끌어들여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투표독려 행위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용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의 영향으로 총선의 결과가 달라졌다고 판단하기에는 경험적 자료의 뒷받침이 부족하다.

7) 하지만 표 16의 유의도는 0.831로, 표 17의 유의도는 0.720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기는 어렵다.

IV. 결론

제17대 총선에서 대학생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미디어는 방송매체, 주민사랑과 대화, 인터넷정보, 종이언론 순으로 나타나, 기존 신문의 극적인 영향력 쇠퇴와 방송매체와 인터넷의 영향력 확대가 명확히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문에 영향을 받은 집단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방송과 인터넷에 영향을 받은 집단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터넷정보와 방송매체에 영향을 받은 집단에서 우리당 후보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한나라당을 선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정당의 선택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신문에 영향을 받은 집단에서 41.7%가 민노당을 선택한 것이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평신, 메신저 대화명, 온라인 폴 참여, 투표참여 독려 수신과 투표참여 독려, 더 변수와 투표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예상했던 대로 투표독려를 한 네티즌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으나, 본인이 투표독려를 하였다면 거의 100%의 투표율을 보였어야 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폴에 자주 참여한 집단의 투표율(67.6%)이 높았고, 메신저 대화명이 62.4%, 평질을 자주한 집단이 58%의 투표율

표 18. 온라인 정치활동과 투표율 (%)

	평질		메신저대화명		온라인 폴 참여			투표독려수신		투표독려		
	빈도	자수	가끔	없음	있다	없다	지주	가끔	없음	있다	없다	있다
투표율	58.0	51.8	50.1	62.4	48.2	67.6	55.2	41.6	58.5	47.6	68.3	49.3

표 19. 온라인 정치활동과 투표후보 정당 (%)

	평질		메신저대화명		온라인 폴 참여			투표독려수신		투표독려		
	빈도	자수	가끔	없음	있다	없다	지주	가끔	없음	있다	없다	있다
우리당	48.3	46.8	51.6	51.3	49.3	56.3	51.0	45.0	52.8	48.1	47.4	50.1
한나라당	15.5	27.2	32.8	19.6	33.2	21.8	28.5	35.5	27.3	31.2	27.4	30.1
민노당	29.3	14.0	6.8	20.1	7.6	15.1	11.9	6.8	11.3	10.3	14.7	10.2

표 20. 온라인 정치활동과 비례정당 투표

(%)

	편지					온라인 폴 참여			투표독려수신		투표독려	
	빈도	자주	가끔	없음	있다	없다	자주	가끔	없음	있다	없다	있다
우리당	36.2	36.2	36.6	37.0	36.1	41.2	37.1	33.1	42.6	32.9	36.8	36.2
한나라당	12.1	20.0	26.6	11.6	27.4	13.4	22.5	29.9	18.1	26.7	20.0	24.1
민노당	51.7	37.4	28.3	45.5	28.8	42.0	36.1	23.5	31.2	33.9	37.9	32.9

을 보였다. 투표독려 수신을 한 집단의 투표율은 58.5%였다. 온라인에서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이 현실세계에서의 투표율과 일정한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온라인 폴 참여와 메신저 대화명, 필질의 빈도순으로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정치활동과 투표후보 정당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우리당 후보를 선택한 네티즌들은 온라인 정치활동의 유무에 크게 상관없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다만 온라인 폴 참여 빈도에 따라 우리당 투표율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하지 않은 집단에서 한나라당을 선택한 네티즌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편지의 경우 15.5% → 27.2% → 32.8%, 메신저 대화명 19.6% → 33.2%, 온라인 폴 21.8% → 28.5% → 35.5% 등으로 나타나 온라인 활동가들의 한나라당 선택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민노당의 경우는 우리당과 같은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정치활동과 비례정당 선택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20과 같다.

비례정당의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당의 경우 온라인 활동의 적극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특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온라인 폴 참여에 있어서 41.2% → 37.1% → 33.1%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투표독려 수신 집단에서도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나라당은 적극적인 인터넷 활동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았고, 소극적인 네티즌들에게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당은 인터넷 활동가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대학생 네티즌들의 투표 성향은 온라인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집단은 약간 높은 비율로 우리당을 지지하였고, 민노당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온라인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한나라당은 온라인

활동가들의 낮은 지지와 비활동가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의 획득이라는 상반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어서,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가 현실세계에서의 정치참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활동가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지에 대하여는 현재의 설문 자료로는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한 온라인 효과인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즉 오프라인에서 정치적으로 활동적이었던 대학생이 온라인에서도 활동적이고 그것이 투표 여부와 투표 선택으로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무관심자였던 대학생이 온라인 활동 때문에 투표 여부와 투표 선택이 달라진 것인지에 대하여는 경향성을 판독할 수 없다는 것이다. 16대 대선과 총선에의 참여 여부를 가지고 현실의 세계에서 적극적인 정치작 활동가인지를 판독할 수는 있으나, 대학생이라는 표본 집단의 특성상 투표권이 없었던 집단이 많아, 분석의 한계가 노정된 점 아쉽게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상현, 1999. 『정보통신혁명과 한국사회: 뉴미디어의 패러독스』, 서울: 나래출판사.
- 김용철·윤성이, 2000.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과 16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3호.
- 유석진, 1996. "정보화와 민주주의." 한배호 편, 『세계화와 민주주의』, 성남: 세종연구소.
- 유석진, 2003. "정보화사회의 정치과정과 우리의 과제." 윤영관·유석진 위음, 『정보화의 도전과 한국』, 서울: 한울아카데미.
- 윤성이, 1999.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치과정의 변화: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정보화저널』 제6권 3호.
- 성동규, 2003. "인터넷과 참여민주주의: 한국의 16대 대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 정연정·조성대, 2004. "한국 네티즌의 주요 구성과 정치적 특징: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10권 3호.
- 정연정, 2001. "선거과정에서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김영래 위음, 『정보사회와 정치』, 서울: 오름출판사.
- 정연정, 2004. "한국 선거환경의 변화와 유권자 투표 참여 증대방안."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3, 18).

ABSTRACT ❦

Online Political Activities and Voting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The Case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Seok-Jin Lew Sogang University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medias which affected the university students most were in order of TV, discussions with friends and family, internet and traditional press. However, voting participation was highest among the students who were mainly affected by the traditional press. Participation in the online poll, changing messenger names, and 'pum' (literally meaning paste and post) were important in deciding the voting participation, among the online political activities. Online political activists were more inclined to support the progressive parties, Open Uri Party and Democratic Labor Party. The conservative party, Hannara, earned major support from the online non-activists but less from the online activists. The online activists showed higher voter turnout than the non-activists. The survey data shows that the online political activities are associated with the voting participation in the real world.

〈첨부: 설문지〉

대학생 네티즌의 인터넷에서의 정치참여와 의식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정보사회와 정치연구회]의 연구 프로젝트로서 [대학생 네티즌의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와 의식]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정보사회와 정치연구회는 정보사회의 정치를 연구하는 관련 연구자들의 모임입니다.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 과정을 통해 나타난 네티즌의 정치참여와 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연구조사 결과는 학문적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합니다.

2004년 6월 8일

연구책임자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석진 拜.

1. 지난 4월 15일 총선에 투표하셨습니까?

- ① 예(2-3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4번 문항으로)

2.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대한 두 번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에 참여 하셨다면, 투표한 후보는 어느 당 소속이었습니까?

- ① 한나라당 후보
② 새천년 민주당 후보
③ 열린 우리당 후보
④ 자민련 후보
⑤ 민주 노동당 후보
⑥ 기타 정당 후보
⑦ 무소속 후보
⑧ 없음/모름/무응답

3.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하셨습니까?

- ① 한나라당
② 새천년 민주당
③ 열린 우리당
④ 민주 노동당
⑤ 기타 정당
⑥ 없음/모름/무응답

4.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투표권 없었음

5. 평소에 9시 뉴스(혹은 8시 뉴스) 등의 TV 뉴스를 시청하십니까?

- ① 예(일주일에 4-5회 정도)
② 가끔 본다

③ 아니오

6. 평소에 (오프라인) 종이신문을 보십니까?

① 예(일주일에 4~5회 정도)

② 가끔 본다

③ 아니오

7. 오프라인에서의 정치적 시위(항의·촛불시위)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 특정 정당에 가입한 당원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이번 총선 과정에서 지지정당이나 후보가 바뀌었습니까?

① 예(10번으로)

② 아니오(11번으로)

10. 만약 지지정당 후보가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통과

② 거대여당 견제

③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선출

④ 민주당 추미애 의원 삼보일배

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노인평화 발언

⑥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관계

⑦ 지역주의 청산

⑧ 후보나 정당의 정책

⑨ 기타()

11. 귀하의 정치적 선택에서 이번 총선 기간동안 어떤 미디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주변사람과의 대화
- ② 종이언론(신문, 잡지)
- ③ 방송매체(TV, 라디오)
- ④ 인터넷 정보
- ⑤ 이동통신
- ⑥ 모름/무응답

12.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 ① 매일 사용한다
- ② 2~3일에 한번 사용한다
- ③ 일주일에 한번 사용한다
- ④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⑤ 모름/무응답

13. (PC 통신 포함)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 ① 1년 이내
- ② 1~5년
- ③ 5~10년
- ④ 10년 이상

14. 인터넷 사용시 가장 중요한 사용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이메일, 메신저 등
- ② 뉴스, 가십, 정보 취득
- ③ 커뮤니티 활동(NGO 포함)
- ④ 블로그 혹은 개인 홈페이지(싸이질 포함)
- ⑤ 모름/무응답

15. 인터넷을 통해 선거·정치 정보를 이용하십니까?

- ① 매우 자주 이용한다
- ② 어느 정도 이용하는 편이다
- ③ 별로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 ④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6. 지난 2년간 온라인에서 정치·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글이나 사진, 패러디물을 올리거나 다른 이의 글을 복사해서 게시한(펌질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있다(5회 이상일 경우)
- ② 가끔 있다
- ③ 없다

17. 지난 2년간 온라인에서 정치·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사이버 여론조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있다(5회 이상일 경우)
- ② 가끔 있다
- ③ 없다

18. 메신저 대화방에 정치·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근조표시 포함)

- ① 있다
- ② 없다

19. 다음의 정치적 사이트 중 주로 가는 사이트에 빈도에 따라 표시해주시시오.
(11개 사이트 모두에 빈도 표시 바람, 중복 응답 가능)

구분	사이트명	매우 자주	자주	보통	가끔	거의 없다
19-1	디씨인사이드	1	2	3	4	5
19-2	라이브이즈	1	2	3	4	5
19-3	서프라이즈	1	2	3	4	5
19-4	포탈 정치 뉴스 사이트	1	2	3	4	5
19-5	온라인 저널(신문, 방송)사이트(예: imbc, 조선일보 등)	1	2	3	4	5
19-6	오마이뉴스	1	2	3	4	5
19-7	NGO	1	2	3	4	5
19-8	정당	1	2	3	4	5
19-9	정치인	1	2	3	4	5
19-10	공공기관 및 지자체 (예: 선관위 사이트)	1	2	3	4	5
19-11	정치정보 전문 사이트	1	2	3	4	5

* 그 밖에 즐겨찾는 정치관련 사이트가 있다면 적어주시시오.

()

20. 17대 총선 당일(4월 15일)에 즈음하여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투표참여 독려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1. 17대 총선 당일(4월 15일)에 즈음하여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투표참여 독려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2. 소속 학부

()학부 ()학년

2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4. 연령

① 10대 ② 20~24 ③ 25~30 ④ 30대 이상

25. 거주지(현재 거주지)

① 서울 ② 인천/경기 ③ 대전/충청 ④ 광주/전라 ⑤ 대구/경북
⑥ 부산/울산/경남 ⑦ 강원 ⑧ 제주

26. 출신지

① 서울/인천/경기 ② 대전/충청 ③ 광주/전라 ④ 대구/경북
⑤ 부산/울산/경남 ⑥ 강원/제주/기타 ⑦ 모름/무응답

27. 가족의 월평균 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③ 201~300만원
④ 301~400만원 ⑤ 401만원 이상